

 외교부		보도자료		<i>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2-950	
배포일시	2022.11.04.(금) 13:00	담당부서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담당자	한민영 / 기후변화외교과장 (02-2100-7711)			

나경원 기후환경대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2022.11.7.(월)~8.(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Sharm El Sheikh)에서 개최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 정상회의 공식명칭 : 「The Sharm El Sheikh Climate Implementation Summit」

□ 금번 정상회의에는 프랑스, 독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약 100여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위기와 인플레이션, 식량 위기 상황에서도 지구 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기후행동 “이행” 노력을 계속하자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경원 특사는 COP2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산림, 해운 등 부문별 신규 기후대응 협력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우리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을 활용해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 또한, 나 특사는 탄소중립은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만큼 지난 5월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고자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개도국 탈탄소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나 특사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스리랑카, 몽골 등 우리나라와 기후변화협력 잠재력이 큰 개도국들과 온실가스 감축 가능 분야도 모색할 계획이다. 끝.